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박태성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짜임의 구조를 모티브로 한  
도자 장식 연구  
- 등공예 기법을 중심으로 -

2023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박현영

짜임의 구조를 모티브로 한  
도자 장식 연구  
- 등공예 기법을 중심으로 -

박태성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공예학과


박현영

# 인 준 서

박헌영의 석사학위논문으로 인준함

2023년 5월

심사위원장 한 영 숙 (인) 

심사위원 김 서 만 (인) 

심사위원 박 태 성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 논문개요

짜임은 조직이나 구성을 뜻하는 단어로 가깝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의 직물, 혹은 풀이나 나무를 엮어 만든 것들이 있다. 이것은 일정한 규칙을 갖고 반복함으로써 구조적 내구성과 기능성을 가지며 그중 우리에게서 바구니, 소쿠리 등과 같이 친숙한 느낌을 자아내는 다양한 짜임이 존재하고 있다.

그중 등공예는 짜임의 장식성과 예술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많은 가구와 실용품 제작에 사용되며 등나무의 재질감과 내구성 또는 기능성을 위한 필연적인 짜임의 형태로 인해 매우 독특한 장식적 미감이 내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등공예의 짜임이 갖는 여러 구조와 형태가 도자 장식의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등공예 기법을 응용한 장식 패턴화 과정 제시와 실제 도자 테이블웨어에 적용하였다.

등공예 짜임은 전체의 형태를 이루는 바닥, 몸통, 끝부분으로 나누어지고 짜임 방식 역시 상이하기에 각 기법에 따른 짜임의 형태와 내용을 정리하고 도식화 과정과 패턴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작방법에 있어서는 등나무의 재질감을 도자 물성에서도 표현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였으며 이 과정 속에 짜임의 조각 표현 방법을 석고 원형 조각이라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였다. 여기에 더해 최종적인 질감 표현을 위해 유약의 사용방법과 질감 표현을 위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자 장식에 활용할 수 있는 짜임의 형태를 도출하였으며 질감 표현에 필요한 재료 조합 및 제작방법을 제시하였다.

도자 장식으로서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도자 테이블웨어의 아이템을 대상으로 짜임 형태의 조각 장식과 유약 기법을 적용하여 등공예의 짜임이 도자 장식의 표현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	1
1. 연구 동기 및 목적 .....	1
2. 연구방법 .....	2
II. 본론 .....	3
1. 등공예 짜임 기법의 구조 및 분류 .....	3
1) 등공예 짜임의 구조 .....	3
2) 등공예 짜임 기법 분류 .....	6
2. 짜임 구조 도식화와 적용 .....	13
1) 짜임 구조의 도식화 .....	13
2) 도식화의 적용 .....	18
3. 짜임 구조의 제작과 표현 .....	27
1) 짜임의 표현 과정 .....	27
2) 짜임의 질감 표현 .....	30
4. 시작품 .....	36
III. 결론 .....	51

## 참고문헌

## ABSTRACT

## 표 목 차

【표 1】 바구니 구조에 따른 짜임의 기본 분류 .....	4
【표 2】 바닥 짜기 도식화 과정 .....	14
【표 3】 무늬 짜기 도식화 .....	15
【표 4】 공간 구성에 의한 무늬 짜기 도식화 .....	16
【표 5】 테두리 마무리 도식화 .....	17
【표 6】 국화 마무리 응용 이미지 .....	17
【표 7】 전체 작업 과정 .....	30
【표 8】 투각 기법의 표현 과정 .....	34

## 그림 목 차

【그림 1】 짜임의 기본 형태와 위치별 명칭 .....	4
【그림 2】 등나무 살의 두께와 수에 따른 이미지 .....	6
【그림 3】 전등갓 제작과정 .....	7
【그림 4】 바닥 짜기 기법 .....	8
【그림 5】 무늬 짜기 기법 .....	9
【그림 6】 공간 구성에 의한 무늬 짜기 기법 .....	10
【그림 7】 테두리 마무리 기법 .....	11
【그림 8】 짜임 조각 과정 .....	28
【그림 9】 짜임 세부 조각 과정 .....	28
【그림 10】 제작 도구 .....	29
【그림 11】 안료를 이용한 유약 발색 실험 .....	32
【그림 12】 안료를 이용한 소지 발색 실험 .....	33

## 시작품 목차

【작품 1】 짜임 편병 .....	36
【작품 2】 투각 짜임 볼 .....	37
【작품 3】 짜임 촛대 .....	38
【작품 4】 소쿠리 짜임 작은 합 .....	39
【작품 5】 사각 짜임 패턴 .....	40
【작품 6】 투각 짜임 화병 .....	41
【작품 7】 짜임 컵 시리즈 .....	42
【작품 8】 원형 짜임 플레이트 .....	43
【작품 9】 테두리 짜임 접시 .....	44
【작품 10】 평면임 사각 접시 .....	45
【작품 11】 사방 짜임 사각 접시 .....	46
【작품 12】 소쿠리 짜임 이중 접시 .....	47
【작품 13】 타원 짜임 볼 .....	48
【작품 14】 사방 짜임 화분 .....	49
【작품 15】 큰 소쿠리 짜임 .....	50

# I. 서 론

## 1. 연구목적

우리가 평시 사용하는 물건들의 표면 구조를 보면 선으로 짜인 것들을 흔히 볼 수 있는데 그중 등공예는 이러한 다양한 짜임의 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좋은 예이다. 일반적으로 물건을 담거나 보관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구조와 강도 및 내구성을 위한 특정한 형태의 조직이 필요하다. 이러한 특정 형태의 조직은 짜임이라는 방법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큰 형태가 만들어지는데 형태의 구조적 이유로 인해 매우 다양한 짜임 형태가 나타난다. 이러한 짜임의 형태는 기물의 구조별 특성으로 인해 촘촘하기도 하며 때로는 짜임 간의 공간을 구성하는 등 표면 질감은 물론 공간 구성에 있어서도 매우 장식적이라는 느낌을 준다.

등공예에 있어 이와 같이 필연적으로 주어지는 표면의 장식적 효과로 인해 짜임의 형태는 그 자체가 장식의 주된 요소가 되기도 한다. 따라서 짜임의 구조적 형태에서 오는 장식적 효과는 등공예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미술 장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

도자 표현에 있어서도 등공예에서 보이는 짜임은 그림이나 조각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짜임의 구조적 특성을 활용한다면 장식뿐만 아니라 도자기의 용도에 맞는 구조 형태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등공예에서 보이는 짜임 구조의 특징과 장식적 효과를 이용하여 변형하거나 새로운 짜임의 조합을 통하여 도자 장식에 적합한 표면 장식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짜임의 구조와 구조에 따른 형태가 갖는 특징을 테이블웨어 제작에 적용함으로써 짜임의 장식적 역할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 2. 연구방법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등공예에서 짜임의 조형적 특성과 구체적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등공예에서 보이는 짜임 구조의 특징을 알아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짜임의 도식화 작업 및 도자 기물에 적용하였다.

우선 등공예 짜임 기법이 갖는 특징을 살펴보고, 그중 조형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짜임을 위주로 선정하여 표로 정리하고 구체적인 적용 가능성을 알아보았다.

다음으로는 선정된 짜임의 구조를 단순한 선을 이용하여 ‘도식화의 과정’을 통해 장식 패턴으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도식화는 기존의 짜임을 바탕으로 짜임의 밀도를 높이거나 교차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패턴을 모색하였으며 이러한 패턴의 유기적 연결을 통해 새로운 패턴의 도식화 과정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도식화된 짜임 구조를 단독으로 또는 여러 짜임의 구조를 연결하여 형태에 적용하는 과정을 표를 이용하여 정리하고 각각의 적용에 따른 장식적 효과와 이미지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법 표현으로는 짜임의 표현에 적합한 조각 방식을 중심으로 석고 원형 제작을 시도하였으며 석고 캐스팅 기법에 의한 기물 성형을 통해 짜임의 구조를 도자 기물로 제작하였다.

장식의 마감으로는 소지에 안료를 섞어 일정한 색상의 소지 실험과 유약의 색상 비율, 유약의 유무에 따른 표면 장식의 차이를 실험 과정을 통해 진행하였다. 이외에 등공예의 표면에서 보이는 공간 표현을 위해 투각 기법을 활용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 방법을 통하여 짜임 구조의 도식화와 적용을 통해 도자 장식 표현으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 II. 본 론

### 1. 등공예 짜임 기법의 구조 및 분류

#### 1) 등공예 짜임의 구조

등나무는 열대나 아열대 기후에서 자생하는 덩굴성 식물이며 동남아시아의 대표적 등공예인 라탄(Rattan)의 주재료로 사용된다.<sup>1)</sup> 흔히 5월경 자색의 포도송이 같은 형태의 꽃을 피우는 우리나라의 등나무와는 다르며 기후적으로 더운 곳에서 자생하는 이유로 단단하고 탄성이 높으며 가벼운 재료적 특성을 지니고 있기에 다양한 공예품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등나무의 단면은 결보기와는 다르게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이 많이 있어, 부피에 비해 아주 가볍고 질기며 탄력적이어서 튼튼한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sup>2)</sup>

이러한 등나무의 특성으로 인해 매우 다양한 짜임의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짜임의 형태 또한 매우 장식적인 느낌을 준다.

등나무 바구니의 경우 이러한 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등나무의 탄성과 내구성, 가벼운 무게의 장점 때문에 물건을 담고, 보관하는 형태의 제작이 용이하며 각 구성 부위에 나타나는 짜임의 형태 또한 매우 흥미롭다.

바구니의 제작 순서는 바닥을 만든 다음에 몸통을 엮어 올라가고 마지막으로 테두리를 마무리하여 완성하는 것이다.<sup>3)</sup> 이는 등공예의 기본적인 구성으로 하나의 전체적인 형태를 이루는 기본적인 짜임 구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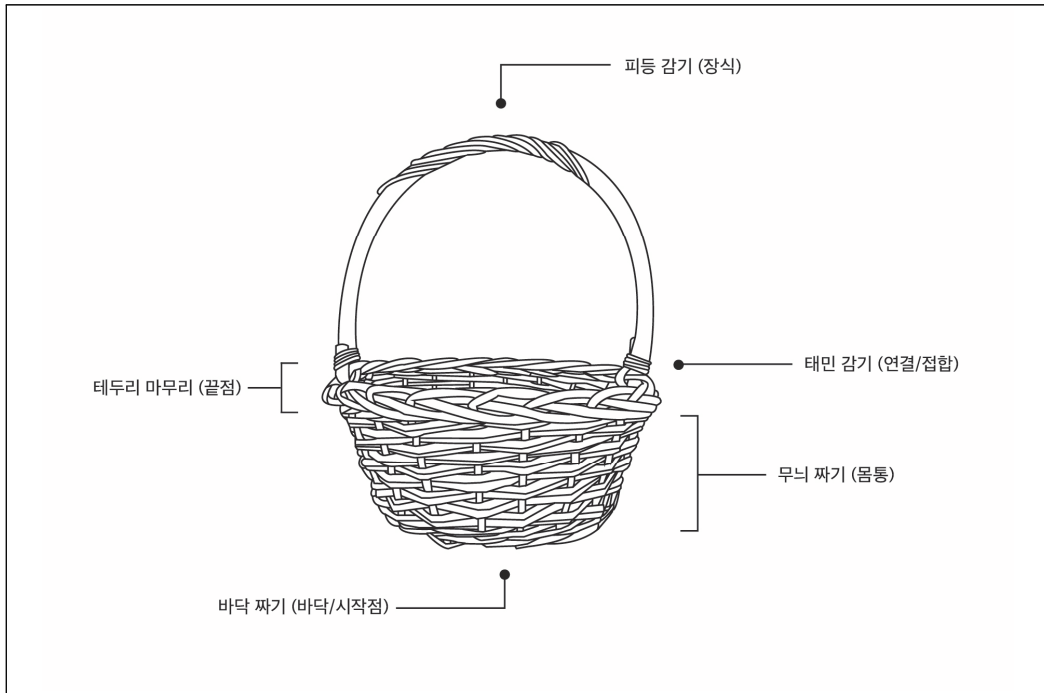
【그림 1】은 등공예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구니의 형태를 기준으로 각

1) 편집부 편, 『등공예』, 태을 출판사, 2019, p.18.

2) 김수현, 『라탄으로 만드는 감성 소품』, 영진닷컴, 2020, p.10.

3) 이숙진, 『고등 등공예』, 민서 출판사, 1985, p.20.

위치별 명칭과 특징을 정리한 그림이다. 바구니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에 따라 짜임 기법을 달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형태 구조의 역할에 따라 짜임의 구조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림1】 짜임의 기본 형태와 위치별 명칭

【표1】 바구니 구조에 따른 짜임의 기본 분류

분류	기법	내용
몸체	바닥 짜기	가장 처음의 구조, 바닥의 면적
	무늬 짜기	전체 형태와 구조, 다양한 변형 가능
	테두리 마무리	마지막 형태 마무리
구조 연결	태민 감기	서로 다른 구조 연결
장식	피동 감기	부분적 장식 요소

등공예에서 형태를 이루는 구조는 크게 바닥, 몸통, 테두리로 나뉜다. 각각의 역할과 그에 따른 짜임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나며 기법 또한 달리고 있다. 각 부위별 짜임 명칭을 보면 바닥 부분은 바닥 짜기, 몸통은 무늬 짜기, 테두리는 테두리 마무리로 각각의 위치의 역할에 따른 짜임 방식을 갖는다.

바닥 짜기의 경우 무언가를 담거나, 받치는 등 내구성에 관한 부분에 따른 구조적 짜임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몸통 부분으로의 연결과 함께 감싸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주로 十 자, 米 자, 井 자로 구성하여 주변부로 확산할 수 있는 짜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바닥 짜기는 바닥을 안정감 있게 지지할 수 있도록 직선의 교차된 방향으로 제작되는데, 이는 바닥 부분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형태이다. 단순하지만 짜임 구조의 시작점이라는 부분에서 형태적 특징이 강하다. 이 부분은 다른 짜임의 구성과의 연결을 위한 수단으로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는 부분이며, 직선이 교차되는 강한 이미지를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하나의 패턴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몸통 부분의 무늬 짜기는 면적이 큰 만큼 짜임의 구성과 그 장식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다. 바닥 부분에서 연결되어 담는 물건의 너비와 폭에 따라 짜임의 구조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기에 무늬 짜기의 방식과 짜임 형태는 매우 다양하다. 가로와 세로의 방향을 기준으로 한 기본적인 구성에서부터 대각선, 곡선 등의 다양한 조합의 활용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이미지의 형태를 다양하게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짜임의 구조는 다양한 패턴으로 도식화할 수 있으며 이러한 패턴의 활용을 통해 특정한 장식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테두리 마무리는 형태를 이루는 마지막 부분으로써 위고 난 마지막 구조와 형태의 정리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다시 다른 형태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형태를 갖는 것이 특징이며, 형태가 끝나는 끝부분을 단단히 감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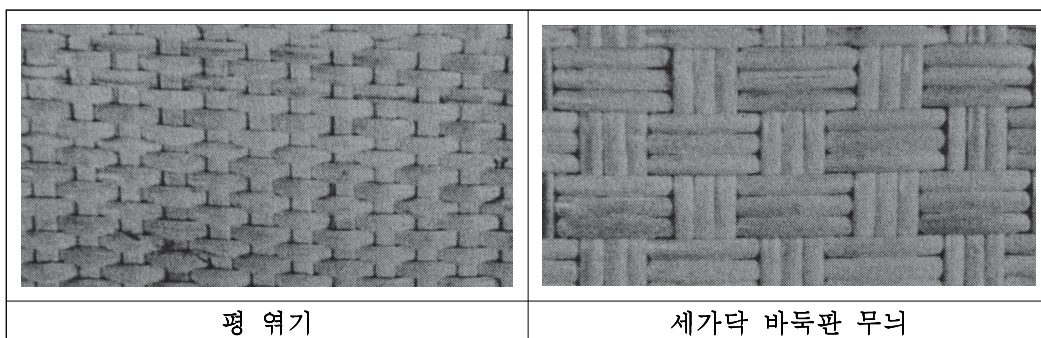
구조적 내구성 확보와 더불어 나타나는 강인한 짜임의 형태는 매우 정리된 느낌을 준다. 마무리를 위한 짜임의 형태와 더불어 등나무 살 또는 짜임 간의 사이에 빈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하는 경우도 많다.

태민 감기는 손잡이 등과 같은 다른 구조의 형태를 연결하는 짜임 방식이며 단순하지만 마감의 이미지를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외에 손잡이 부분에 사용하는 피등 감기 등이 있는데 시각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에 단순한 짜임이지만 매우 장식적인 짜임 등을 볼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바닥 짜기, 무늬 짜기, 테두리 마무리 등의 짜임방식에 따라 매우 다양한 짜임 형태를 만들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각 짜임 방식에서 보이는 짜임 형태는 패턴의 도식화 과정에 매우 유용한 모티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 등공예 짜임 기법 분류

등공예에 있어 짜임의 구조는 등나무 살을 세로와 가로로 방향으로 어긋나게 엮어 조직을 구조화하며 제작 용도에 따라 조직 및 구조를 반복적으로 형성하여 하나의 형태를 만들어 간다. 여기서 등나무 살의 세로 방향은 날대라 하고 가로 방향을 사릿대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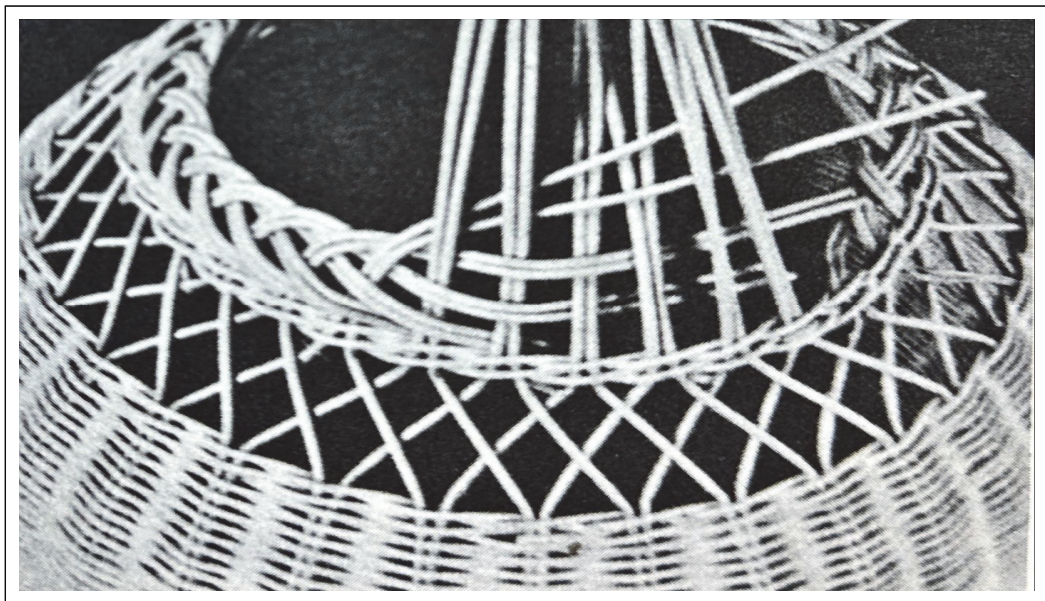


【그림2】 등나무 살의 두께와 수에 따른 이미지

사릿대와 날대는 짜임의 구조를 형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단위이며 각각의 방향에 따른 등나무 살의 두께와 수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 표현이 가능하다.

【그림 2】의 평 위기는 가로방향의 사릿대와 세로방향의 날대로 가장 기본적인 짜임 구조로서 하나의 평면구조물을 짜는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우측의 세가닥 바둑판 무늬의 경우 내구성 증가를 위해 등나무 살을 여러 가닥으로 붙여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이는 등나무의 살의 밀도감은 단순하지만 독특한 조형적 특성과 감성을 담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수직, 수평에 의한 기본적인 짜임 외에도 대각선, 혹은 곡선을 사용하면 평면적 구조 외에도 입체적 구조를 제작할 수 있다.



【그림3】 전등갓 제작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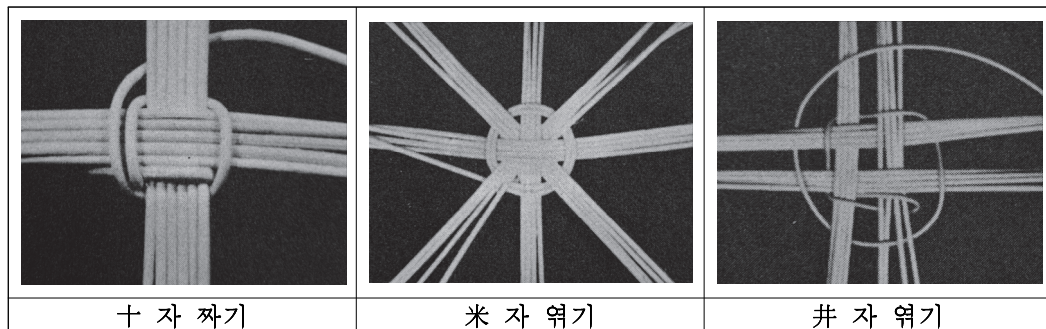
【그림 3】은 전등의 갓을 제작하는 과정인데 곡선과 대각선의 사용에 의한 다양한 이미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며 등나무 살의 배치에 있어 빈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입체적 공간감을 느낄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등공예에 있어 짜임은 기본적인 수직, 수평, 대각선, 곡선이라는 간단한 기하학적 구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어떠한 방식으로 엮어나가는가에 따라 내구성은 물론 의도적인 장식 표현까지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등공예의 짜임은 제작물의 구조이자 더불어 나타나는 필연적인 장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특정한 방식의 기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짜임 기법의 분류에 있어서는 전 항의 【표 1】 과 같이 제작 기물의 구조가 기준이 될 수 있다. 구조는 크게 바닥 짜기, 무늬 짜기, 테두리 마무리로 나눌 수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바닥 짜기 기법



【그림 4】 바닥 짜기 기법

바닥 짜기의 가장 기본적인 짜임 기법으로는 十자 짜기, 米자 엮기, 井자 엮기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명칭은 기본 뼈대가 되는 사릿대와 날대가 교차된 모습에서 기인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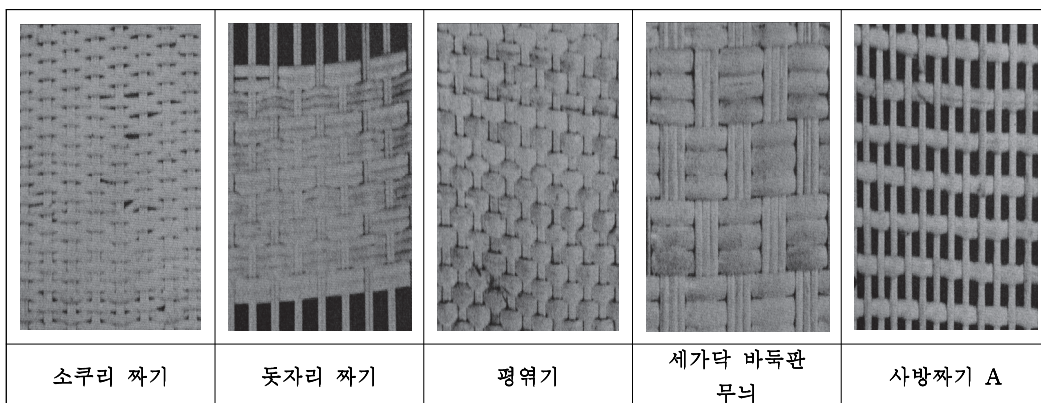
사릿대와 날대가 모이는 중심을 시작점으로 구조가 연장되어 엮여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바닥의 구조적 내구성에 기인한 것이라 생각되나 이와 동시에 나타나는 패턴 또한 매우 조형적 특성을 담고 있다고 보인다.

十 자 짜기는 십자의 형태로 米 자 엮기의 기본 뼈대가 되는 구조이다. 바닥의 단단한 구조를 위해 여러 개의 사릿대와 날대로 구성되며 수직과 수평의 겹친 형태 또한 가장 단순한 구조이기에 본 기법의 응용에 따라 다양한 짜임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이외에도 십자 형태에서 안정감과 집중감은 이를 필요로 하는 장식적 부분에 이와 같은 형태적 표현을 통해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米 자 엮기는 十 자 짜기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더 단단한 구조의 표현을 나타낸다. 수직, 수평, 대각선의 방향은 중심 부분에서의 강조된 형태를 보여주며. 방사형의 조형적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은 ‘확장’이라는 상징성을 담고 있으며 주변의 짜임 구조와의 조화를 통한 구체적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다.

井 자 엮기는 수직, 수평 등나무 살 사이에 정방형의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중심부의 형태적 특성을 뚜렷하게 하고 있으며 공간이 중심이 되는 조형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무늬 짜기 기법



【그림 5】 무늬 짜기 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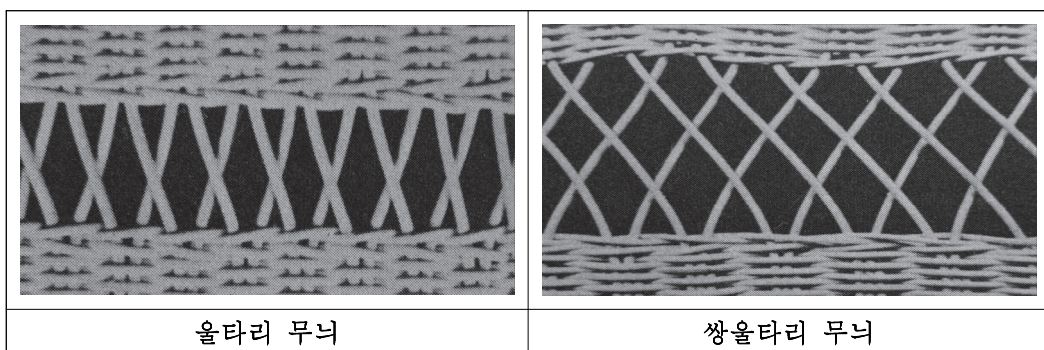
무늬 짜기 기법은 제작 기물의 중앙부를 장식하는 주요 기법으로써 사릿대와 날대의 교차방식과 겹친 형태에 따라 매우 다양한 패턴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 기법이 적용되는 부분이 기물 중앙부의 전체를 감싸는 형태이기에 수직과 수평 그리고 대각선에 의한 짜임의 구조가 전체 기물의 이미지를 좌우하게 된다.

이와 같이 등공예의 기법에 있어 짜임의 구조는 조형적 특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과 동시에 이를 구조화하는 엮는 방식과 결합하면서 더욱 복잡하며 구조화된 짜임 구조를 만들어 낼 수 있다.

【그림 5】의 각 기법에서 알 수 있듯이 수직과 수평에 의한 기본적인 짜임 방식에 특정한 ‘엮는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기능적 요구와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기능적 요구로서는 소쿠리, 돛자리 등과 같이 특정한 용도에 필요한 내구성 및 기능에 따라 짜임의 구조와 엮는 방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형적 특성을 보자면 등나무 살의 너비와 살끼리의 촘촘한 정도, 살의 수의 증감에 따른 장식적 효과의 차이를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촘촘한 정도에 따른 편안함 또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등나무 살의 굵기 변화를 통해 단단하고 묵직한 느낌의 표현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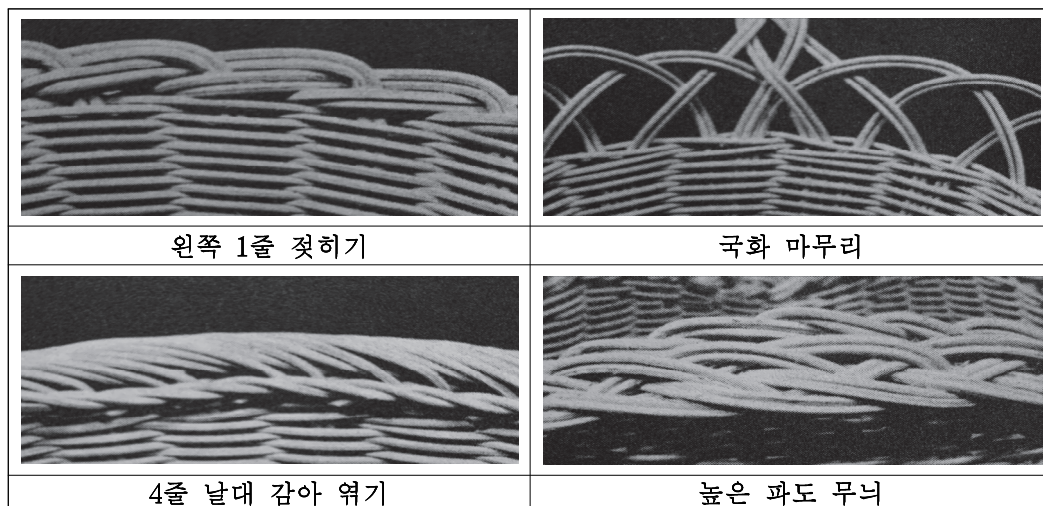
【그림 6】 공간 구성에 의한 무늬 짜기 기법

이외에도 짜임의 복합적 구성에 엮는 방식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짜임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며 여기에 또다시 특정한 엮는 방식을 적용한다면 기하급수적인 경우의 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무늬 짜기 기법에 있어 기존의 짜임 구조와는 별개로 더욱 더 다양한 짜임 형태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조형표현의 가능성은 무한하다고 생각된다.

【그림 6】에서 보이는 무늬 짜기 기법은 등나무 살 간에 일정 공간을 설정함으로써 기능성과 조형성을 강조한 기법이다. 밀도감 있는 평면 짜임 구조에 X자 형태의 대각선으로 연결함으로써 사이의 빈 공간에서 오는 공간감은 보는 이로 하여금 시원한 느낌을 준다. 이외에도 얇은 등나무 살의 느낌과 마름모나 삼각형 모양의 여백 공간의 대비는 매우 장식적인 효과를 주고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등공예에 있어 무늬 짜기 기법은 이름 그대로 짜임의 모양새, 즉 짜임 구조의 무늬를 보여주는 주된 특징이 있으며 여기에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기능적 효과와 개성 있는 장식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3) 테두리 마무리 기법



【그림 7】 테두리 마무리 기법

등공예 제작에 있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구조에서 일정한 짜임을 엮어나가다 보면 최종 매듭을 지어야 하는 테두리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테두리 부분은 짜임과 엮임에 의한 최종 마무리 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부분에 사용되는 기법을 테두리 마무리 기법으로 칭하고자 한다.

테두리 마무리 기법은 끝부분의 마감이 되는 부분을 안정감 있게 선들이 풀리지 않도록 몸통 부분의 짜임을 감아서 마무리하는 것으로 주로 곡선의 형태로 마무리된 경우가 많으며 등나무 살을 꺾어 젖히거나, 교차하는 것을 기본 형태로 한다.

이 부분은 끝나는 마감의 부분이지만 짜임의 특성상 다른 부분으로 시선이 연결되기에 몸통의 무늬를 종결하고 남은 선들을 정리해서 짜임의 완결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조형적 특성이 강조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7】의 국화 마무리 기법은 테두리의 조형적 표현의 강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등나무 살 사이의 교차와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여백 공간의 조화를 통해 장식적 효과를 극대화한 것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장식적 효과의 강조와 더불어 마감에 사용한 짜임과 엮임의 구조는 바닥에서부터 만들어낸 형태를 유지시켜 주고 지지해 주는 충실한 기능을 하고 있다.

아래쪽 높은 과도 무늬의 경우는 짜임과 엮임의 구조에 의해 구체적인 형상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우며 이외에도 구체적인 형상은 없지만 특정한 짜임에 의한 기하학적 패턴 등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등공예의 기법 분류는 짜임의 구조와 엮임 방식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법 분류에 따른 조형적 특성 또한 이 두 가지 요소가 좌우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형 표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2. 짜임 구조 도식화와 적용

### 1) 짜임 구조의 도식화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등공예에 있어 짜임의 구조는 가로와 세로를 기본으로 하지만 특정한 짜임 방식을 구사하면 독특한 조형적 감각의 패턴을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등공예의 짜임 기법에서 보이는 짜임의 형태를 모티브로 도식화 과정을 통한 패턴화 작업을 진행하였다. 짜임 구조의 도식화는 선정된 짜임 형태를 모티브로 간략화된 선 또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본 작업은 바닥 짜기, 무늬 짜기, 테두리 마무리 기법을 기준으로 각 기법에 따른 짜임의 구조를 도식화 및 패턴화 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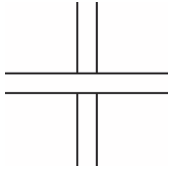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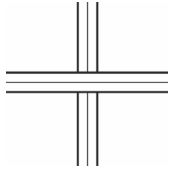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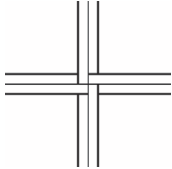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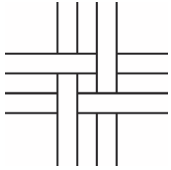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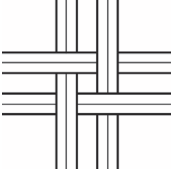

#### (1) 바닥 짜기 도식화 과정

【표 2】은 【그림 4】의 바닥 짜기의 원본의 이미지를 사용하여 도식화 과정을 정리한 표이다. 바닥 짜기 기법의 도식화 과정은 세 단계에 걸쳐 진행하였다. 먼저 원본으로 설정한 짜임의 형태에서 큰 흐름이 되는 구조를 단순화하여 표현하였다. 이 과정에서는 등나무 살의 수에 상관없이 큰 흐름의 구조가 되는 부분을 단순하게 표현하였는데, 이는 다른 구조와의 연결성이나 선의 수의 증감을 쉽게 변형할 수 있도록 한 표현이다. 이를 도식화 과정 ①로 표현하고 이후 도식화 과정 ②에서는 등나무 살의 수를 증가시켜 표면적 질감의 변화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마지막 과정 ③에서는 다른 선들과의 연결성과 교차되는 부분을 변화를 주어 표현한 이미지이다.

도식화의 과정을 이와 같이 세 과정으로 나눈 이유는 원래의 바닥 짜임이 갖는 연결성 때문이다.

바닥 짜기의 중앙 패턴은 기물의 시작점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 단독의 패턴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 부분은 중심이 강조되는 지점으로서 바닥 구조의 면적 설정과 다른 짜임 구조와의 연결, 또는 단독 패턴으로의 활용을 통해 다양한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다. 따라서 단계별 도식화에 의해 생성된 패턴은 미묘하지만 세부적인 형태 변화와 질감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표 2】 바닥 짜기 도식화 과정

바닥 짜기	도식화 과정 ①	도식화 과정 ②	도식화 과정 ③
十 자 짜기			
米 자 엮기			
井 자 엮기			

(2) 무늬 짜기 도식화 과정

무늬 짜기의 도식화 모티브로는 소쿠리 또는 돛자리와 같이 특정한 기능에 의한 짜임을 차용하여 도식화 및 패턴화 과정을 진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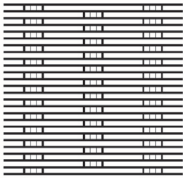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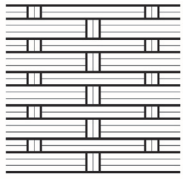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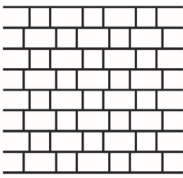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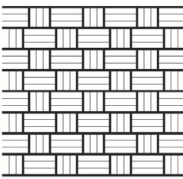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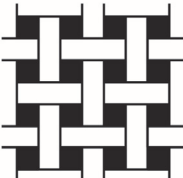
소쿠리 짜기와 돛자리 짜기는 세로의 폭이 좁고 가로 방향성이 강한 이미지기 때문에 안정감과 이지적인 느낌을 얻을 수 있다.

평 엮기는 주로 명석이나 깔개 등을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법으로써 돛자리 짜기의 용도와는 비슷하나 보다 치밀한 구조감이 느껴진다.

세가닥 바둑판 무늬는 등나무 살을 세 가닥으로 겹쳐 엮은 것으로써 내구성이 매우 강하여 주로 의자 제작에 사용된다. 세 가닥의 강한 라인이 주는 느낌과 질감에서 매우 개성이 강한 조형성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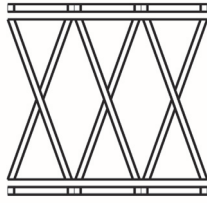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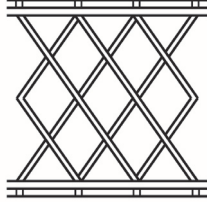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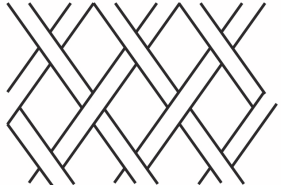
사방 짜기는 선과 선 사이의 여백에서 오는 독특한 조형미가 특징이기에 패턴 제작에 있어 활용도가 높으며 입체적 형상 표현에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표 3】 무늬 짜기 도식화

무늬 짜기	도식화 이미지
소쿠리 짜기	
돛자리 짜기	
평 엮기	
세가닥 바둑판 무늬	
사방 짜기	

【표 4】 역시 무늬 짜기에 해당하는 짜임 형태이나 마름모꼴의 빈 공간에서 오는 조형성은 다른 기법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느낌을 부여한다. 선과 선이 교차되면서 사이에 마름모 형태와 삼각형의 형태가 생기는데, 단순한 도형의 형태가 짜임의 구조와 함께 나란히 반복되는 부분도 매우 장식적인 느낌을 준다. 선의 간격 변화에 의한 마름모꼴의 형태 변화는 밀도감과 연결되며 짜임의 겹치는 방법에 따라 마름모의 질감에 변화가 나타난다.





【표 4】 공간 구성에 의한 무늬 짜기 도식화

무늬 짜기	도식화 과정 ①	도식화 과정 ②
울타리 무늬		
쌍울타리 무늬		

### (3) 테두리 마무리 도식화 과정






테두리 마무리의 짜임에서는 무늬 짜기에서 짜임 형태를 감싸거나, 꺾어서 휘어 엮는 특징 때문에 등나무 살의 두께는 주로 얇은 살을 사용하지만 도식화 과정에서는 얇은 살의 표현은 생략하고 주된 줄기 부분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엮이는 구조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이미지를 표현하였다. 테두리 마무리의 짜임 구조에서는 선의 꺾임, 휘어짐, 감겨있는 곡선 이미지의 표현이 매우 자유롭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5】 테두리 마무리 도식화

테두리 마무리	도식화 이미지
왼쪽 1줄 젖히기	
국화 마무리	
4줄 날대 감아 엮기	
높은 파도 무늬	

【표 6】은 테두리 마무리 짜임의 대표적인 방식인 국화 마무리 도식화 과정을 보다 세분화하여 다양한 패턴으로 표현하였다. 짜임 구조 사이 공간의 표현에 있어 교차되는 지점과 방향 그리고 선의 높낮이의 변화를 다르게 표현함으로써 상이한 이미지의 짜임 및 구조를 표현할 수 있었다.

【표 6】 국화 마무리 응용 이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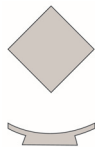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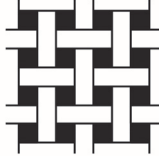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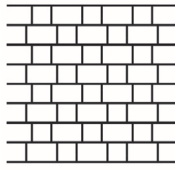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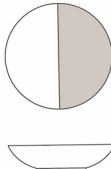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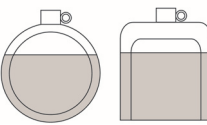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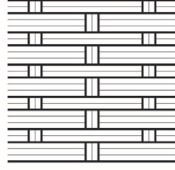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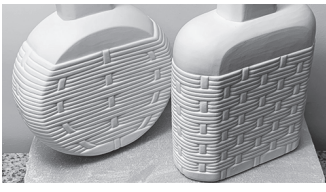
국화 마무리 도식화 원본	
	
응용 ①	응용 ②
	
응용 ③	응용 ④
	

## 2) 도식화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등공예의 짜임을 도식화하고 도자기의 표면 장식으로 표현함에 있어 석고 캐스팅 기법을 활용하여 짜임의 세밀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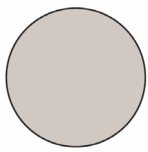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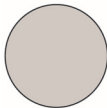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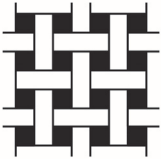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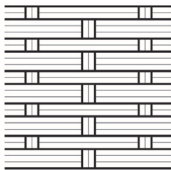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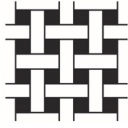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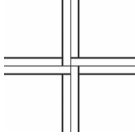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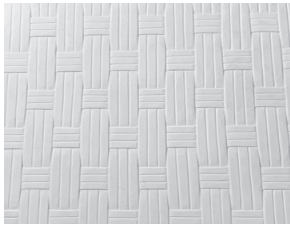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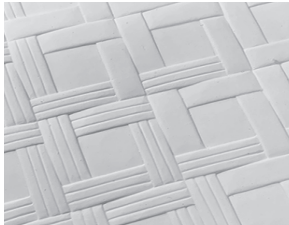
짜임 문양의 도자 장식 적용에 있어서는 테이블웨어의 아이템을 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도식화된 짜임 문양을 적용하여 기물을 제작하였다. 적용된 내용은 표와 설명으로 제시하였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1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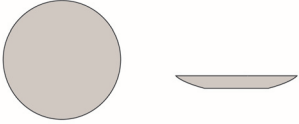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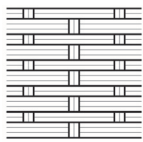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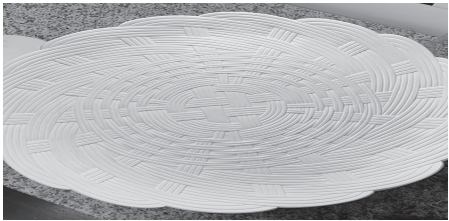

● 무늬 짜기의 짜임 패턴을 접시와 병의 형태에 적용하여 장식적 효과를 꾀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짜임의 세부적인 표현을 강조하여 접시 전면에 표현함으로써 각각의 질감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도식화된 패턴을 도자기 기물의 일부 면에 배치함으로써 질감의 대비에 의한 조형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②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2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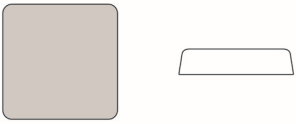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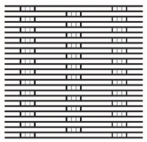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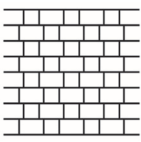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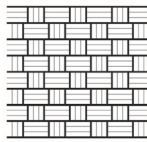






● 무늬 짜기 기법 중 돛자리 짜기와 사방 짜기에서 도출된 패턴을 편평한 형태의 접시 기물에 적용하여 짜임의 면적과 밀도 차이에 의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형적 특성이 강한 사방 짜기 기법을 주로 활용하여 빈 공간의 여백에 의한 짜임의 특성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여백의 면적 변화에 따른 사각 공간의 크기 변화에서 오는 재미있는 형태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③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3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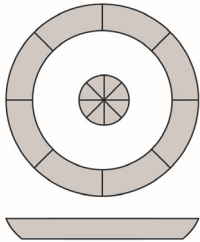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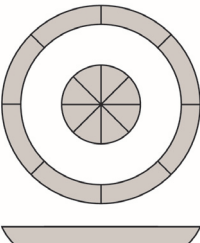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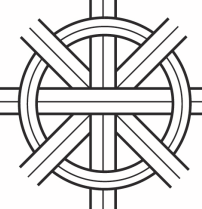


● 바닥 짜기, 무늬 짜기, 테두리 마무리의 짜임을 활용하여 소쿠리 형태로 제작하였다. 앞, 뒤 전면 모두 짜임 구조의 표현이 연결되는 것이 특징으로 기존의 소쿠리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다.

④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4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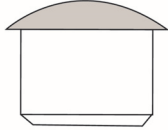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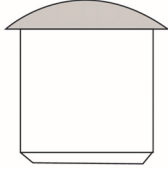



● 무늬 짜기의 도식화된 패턴을 도자 타일에 적용하여 짜임의 구조적 차이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촘촘한 밀도, 면적, 위인 교차점 등의 차이에서 나타나는 각각의 조형적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타일과 같은 평면 구조에 다양한 짜임의 형태와 질감을 표현함으로써 회화적 표현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⑤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5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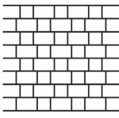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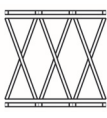








● 바닥 짜기와 테두리 마무리를 기물의 형태의 중심과 끝부분에 적용하여 접시의 표면 장식으로 표현하였다. 중앙부의 짜임은 바닥 짜기의 짜임 형태를 문양화하여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즉 하나의 이미지를 상징하는 심볼과 같은 역할로써 강한 이미지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이외에 테두리 마무리의 화려한 짜임의 형태를 활용하여 주변부의 장식으로 활용함으로써 장식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⑥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6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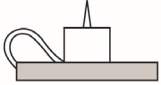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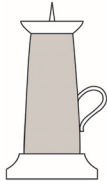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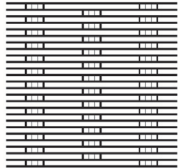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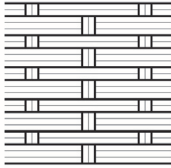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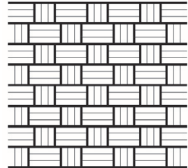



● 합 형태의 기물 뚜껑 부분에만 짜임의 구조를 적용하였으며 소쿠리의 구조를 차용하여 바닥 짜기와 무늬 짜기의 짜임 형태를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표현하였다.

⑦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7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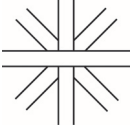


● 컵의 형태에 다양한 짜임의 구조를 적용하여 장식적 표현을 시도하였다. 본 작업에서는 짜임의 기본 구조를 변형 또는 복합적으로 구성하여 새로운 이미지를 제시하였으며 컵의 기면에 다양한 형태와 위치에 적용함으로써 장식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⑧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8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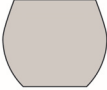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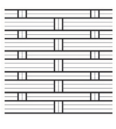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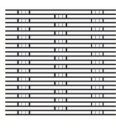



● 높낮이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촛대 형태에 무늬 짜기 구조에서 나타나는 패턴을 적용하여 장식성을 강조하였다. 촛대의 구체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인 손잡이와 초를 고정하는 부분에서는 도자기 유약의 질감이 나타나며, 기물의 형태가 두드러지는 부분에서는 짜임의 구조를 부분적으로 배치하여 유약과 짜임의 질감 대비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였다.

⑨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9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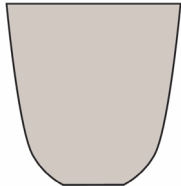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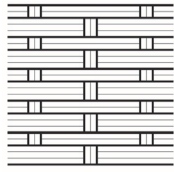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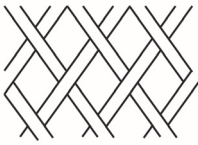



● 사방 짜기 짜임 구조에서 여백으로 남겨진 사각형의 공간을 좁게 설정하여 표현의 특징으로 삼았으며, 별도의 테두리 마무리 짜임 구조를 이용하지 않고, 사방 짜기 본연의 구조만을 이용하여 짜임 구조와 사이 공간의 면적 대비 효과를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바닥 구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 모두에 사방 짜기 패턴을 적용하여 짜임 구조가 갖는 단단한 구조의 이미지를 장식적으로 표현하였다.

⑩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10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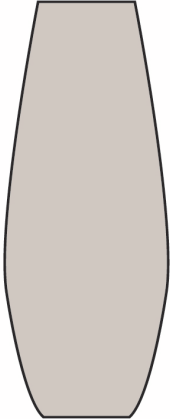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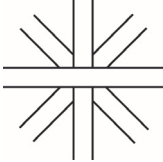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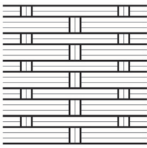


● 볼륨감이 있는 기물의 형태에 다양한 짜임 구조를 조합, 연결하여 다양한 짜임의 변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구형의 볼륨을 가진 형태에 맞춰 다양한 조각의 깊이 표현과 함께 여러 짜임 구조가 자연스럽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적용된 짜임 구조의 면적 대비를 이용하여 시각적 효과를 높이려고 하였다. 테두리 부분의 좁은 여백 공간은 투각 기법을 활용하여 공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⑪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11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 울타리 무늬 기법이 갖는 사선의 방향과 소쿠리 짜기 기법이 갖는 수직, 수평의 방향의 대조적인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몸체는 바구니의 형태로 투각 기법을 통해 빈 공간과 짜임 조직의 극한 대비 효과를 노렸으며 공간을 담은 입체적 조형성을 강조한 오브제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⑫ 도식화의 적용과 표현 12

형태	도식화 적용	표현
		
		
		
		

● 긴 화병 형태에 각각의 짜임 구조를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새로운 조형적 이미지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특히 테두리 마무리 기법의 활용에서 과감한 여백 공간의 설정과 설정된 공간의 높낮이와 폭의 대비를 통해 등공예에서 보이는 선적인 조형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짜임의 구조표현에 있어 석고 원형에 조각이라는 표현 방법을 이용하여 표면 장식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히 유의한 점은 도자기가 갖는 물성의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등공예에서 보이는 조형적 특징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테두리 마무리 부분의 투각에 의한 공간 설정 등이 이에 해당하며 짜임의 구조와 원리를 지켜가며 패턴화한 작업에서 인위적인 표현보다는 등공예에서 보이는 자연스러운 조형미를 표현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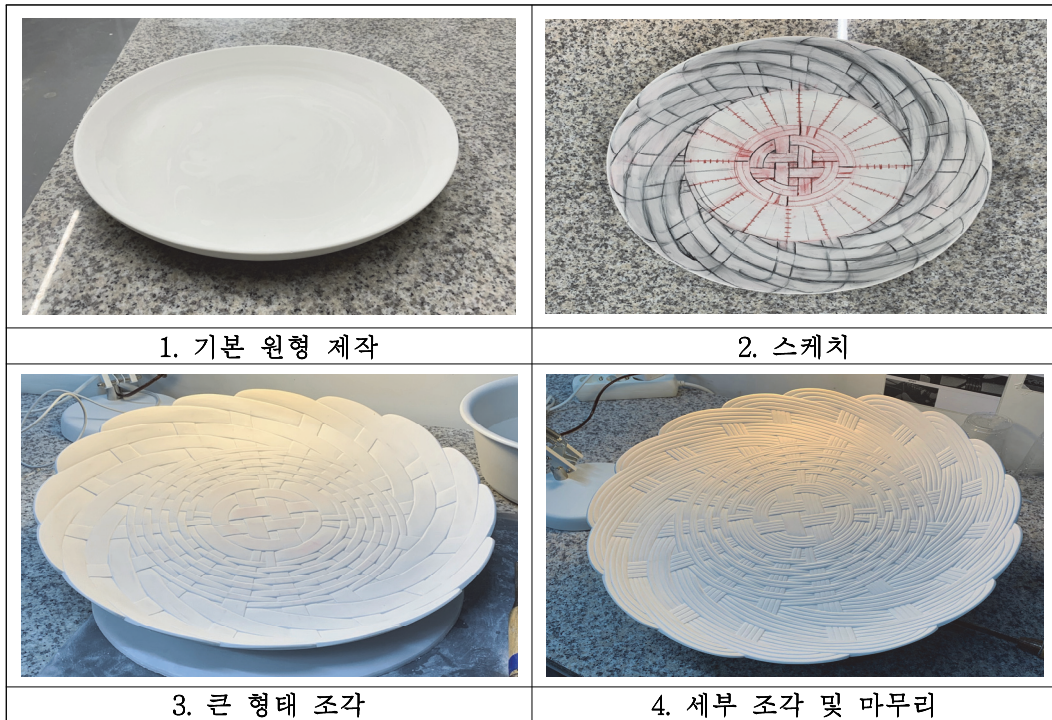
### 3. 짜임 구조의 제작과 표현

#### 1) 짜임의 표현 과정

등공예 짜임의 구조는 선과 선의 엮임으로 인한 미묘한 변화와 복잡한 형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짜임의 구조를 도자기의 장식 표현에 적용할 경우 세밀한 표현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석고 캐스팅 기법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석고 원형의 제작에 있어 조각에 의한 짜임의 표현은 등공예에서 보이는 질감과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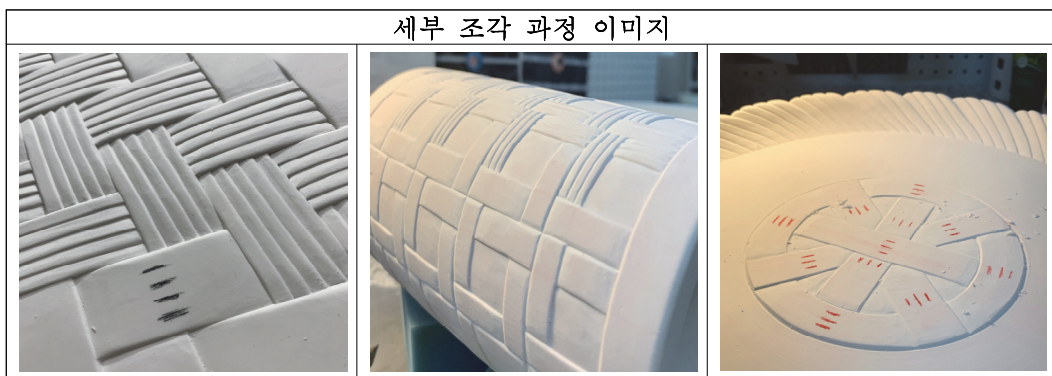
석고 원형 조각은 작업의 전체 과정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복잡한 짜임의 구조를 표현하는데 나름의 장점이 있다. 흙 상태의 기물에서 조각하여 장식하는 일반적인 방식이 있지만 짜임 구조의 특성상 흙의 무른 정도를 조각에 소요되는 시간과 맞추기는 매우 어려우며 수분에 따라 예민한 작업 상태를 갖기 때문에 오랜 시간 건조와 수분의 조절과 함께 조각이 진행될 경우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이외에도 수분이 증발하면서 갈라짐이나 각도에 따라 기물을 움직일 경우 쉽게 깨질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석고 원형의 제작에 있어 양각 위주의 조각 기법을 활용하여 짜임의 형태를 표현하였다.

【그림 8】은 석고를 이용하여 원형을 제작하는 과정이다. 크게 스케치, 큰 흐름 조각, 세부 조각 및 마무리의 과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도식화한 짜임 형태를 모티브로 스케치 과정을 진행하는데 세부적 묘사보다는 전체적인 짜임의 윤곽만으로 기준을 잡아 조각을 진행한다. 짜임의 윤곽이 잡힌 후에는 중첩되는 등나무 살과 같은 세부적인 조각에 들어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짜임과 같은 큰 구조를 표현하는 조각은 깊게, 등나무 살과 같은 세밀한 표현을 보여주는 조각은 얇게 조각하여 사실적인 입체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그림 8】 짜임 조각 과정

아래의 【그림 9】 는 큰 흐름을 표현한 이후에 얇고 세밀한 조각의 과정을 나타낸 사진이다. 조각 표현의 깊이 차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9】 짜임 세부 조각 과정

제작 도구로는 조각도를 이용하여 짜임 형태를 표현하였다. 곡선의 조각도보다는 직선의 조각도가 깊이 조절과 높낮이 표현에 더 용이하기에 직선형 평조각도를 이용하여 조각 표현을 진행하였다. 넓은 면적의 조각과 좁은 세부 조각의 표현에 따라 조각도의 면적, 조각도를 쥐는 각도의 차이가 있다.

전체적인 구조를 표현하는 조각에서는 넓은 날의 조각도를 사용하여 20도에서 40도의 각도로 조각하면 효율적인 표현이 가능하다.

세부 조각에서는 80도에서 90도 사이의 각을 높여 조각하면 예리하지만 얇게 조각이 된다.

본 작업에서는 【그림 10】의 두 종류의 조각도를 사용하여 짜임의 형태에 적합한 각도와 면적 조절에 의한 표현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 제작 도구

다음으로 작업 공정에 있어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짜임의 표현을 위한 석고 원형 제작 과정 후 원형을 활용한 일반적인 도자기 제작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석고 원형 제작 순서는 짜임 도식화 선택, 구조 스케치, 큰 구조 조각, 세부 조각 스케치, 세부 조각, 조각 마무리의 과정 순으로 진행하였다.

도자 성형을 위한 제작의 과정으로는 사용형 석고몰드 제작, 캐스팅에 의한 기물 성형, 기물건조, 1차 소성(초벌), 유약 시유, 2차 소성(재벌)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표 7】 전체 작업 과정

석고 원형 조각	석고 몰드 제작	캐스팅	소성
			

## 2) 짜임의 질감 표현

도자기는 최종적으로 유약에 의해 표면 질감이 좌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이유로 조각에 어울리는 유약의 성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약은 조각 표면을 일정한 층으로 덮어버리기에 조각의 섬세한 느낌이 묻힐 수도 있기에 유약의 유무에 따른 질감 표현을 통해 각기 다른 느낌의 표면 질감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짜임의 질감 표현에 있어 조각의 표현 정도에 의한 질감 표현에서 더 나아가 짜임의 조직에 투각 기법을 이용해 빈 공간을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느낌의 표면 질감을 모색하였다.

이와 같이 유약 처리의 유무는 조각을 보여주는 이미지의 표현 차이를 보여주고, 투각 기법의 활용은 조각 표현의 깊이와 공간감을 통한 이색적인 질감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두 가지 방법의 질감 표현을 시도하였으

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유약의 유무에 따른 표현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약은 장식 표현의 마감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에 유약의 사용 유무에 따라 최종 질감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유약을 사용했을 시는 유약이 녹아 조각이 깊은 부분에 고여 같은 색상이지만 좀 더 깊은 맛과 색을 얻을 수 있다. 즉 도자기만의 특유한 질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에 유약의 두께로 인해 세밀한 조각 부분은 묻히게 되어 세밀한 표현이 감춰지는 결점도 있다.

이러한 유약의 장단점을 반대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써 유약 사용을 배제하고 소지 자체의 질감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무유 제작방법을 들 수 있다. 유약 마감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빛과 그림자, 즉 음영에 따라 조각의 높고, 낮음이 더 돋보이게 되어 짜임 조각 원형 그대로를 보여줄 수 있으며 여기에 소지 자체의 질감을 더하게 되어 매우 자연스러운 느낌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근거를 토대로 유약 시유에 의한 제작방법과 유약을 배제한 소지 제작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유약에 의한 제작방법은 유약의 광도 조절 실험과 안료를 이용한 색상 배합 실험을 실시하고 여기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유약을 제작하였다.

유약은 광택에 의해 조각의 선명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광택을 얻을 수 있는 유약을 실험하였다. 결과적으로는 투명유와 매트유의 중간 정도되는 광택 유약을 선정하여 여기에 얻고자 하는 색상의 안료를 첨가하여 유약 실험을 진행하였다. 안료의 첨가량은 전체 유약 용량의 0.5%에서 3% 정도의 비율로 섞어 발색 실험을 하였으며 조각 깊이에 따른 발색변화에 중점을 두어 사용형 유약을 제작하였다.

【그림 11】의 실험에서 알 수 있듯이 조각이 깊은 곳에서 유약의 색상이 진해지며 조각의 느낌을 보다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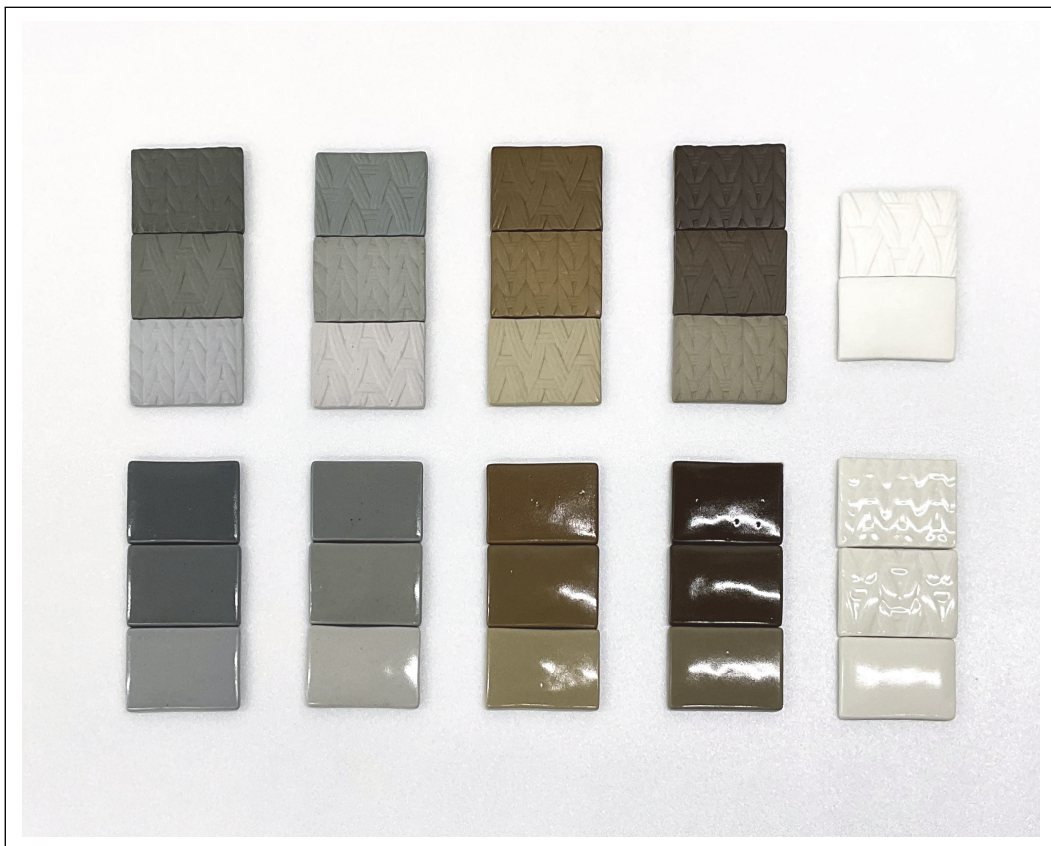


【그림 11】 안료를 이용한 유약 발색 실험

【그림 12】의 발색 실험은 일정한 안료를 소지에 혼합한 후 시유를 하지 않는 무유 소성 결과와 투명유 시유에 의한 소지의 질감을 실험한 결과이다.

안료를 첨가한 소지는 1%에서 3% 정도의 비율로 섞어 밝고 어두운 정도를 세 단계로 나누어 제작하였으며 명도 차이에서 나타나는 조각의 음영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약에 영향을 받지 않은 소지는 매우 자연

스러운 느낌을 얻을 수 있었으며 짜임의 윤곽 또한 강하지는 않지만 빛에 의한 자연스러운 음영을 얻을 수 있어 보다 온화한 느낌의 질감을 얻을 수 있었다. 반면 투명유를 시유한 색소지의 경우 색 유약에 의한 질감 표현보다는 깊이가 얇고 단조로운 느낌의 질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안료를 이용한 소지 발색 실험

## ② 투각 기법의 활용

투각은 일반적으로 도자기에 시문을 하고 문양의 배면을 뚫어주어 더욱 선명하고 입체감이 나도록 하는 기법이다.<sup>4)</sup> 이러한 입체감은 투각에 의한

공간의 형태와 면적에 따라 매우 다른 느낌을 줄 수 있으며 도자기 배면의 문양과 어울려 독특한 질감을 만들어 낼 수 있다.

【표 8】 투각 기법의 표현 과정

	
1. 원형 조각 이미지	2. 캐스팅 후 투각
	
3. 테두리 부분 조각	4. 건조

【표 8】의 석고 원형 조각 이미지와 건조 과정 이미지의 차이를 보면 투각을 한 기물과 하지 않은 기물의 짜임의 구조와 이미지가 확연히 다를 수 있다. 투각을 이용한 이미지에서는 투각된 부분의 공간이 마치 하나의 색상으로 느껴지며 배면에 조각된 문양의 질감과 조화를 이루어 독특한 표면 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생각해 보면 투각에 의한 공간 설정은 특정한 도자기 질감으로 구현되며 이것은 특유의 이미지로 생성된다는 점에서 짜임의 질감 표현 방법으로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짜임의 구조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투각 문양은 인위적이지 않고 필연적인 기능에 의한 공간

4) 염미란, 『도자조형 디자인의 이론과 실기』, 관동대학출판부, 2001, p.84.

설정이기에 필연적인 조형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조형적 특징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대상을 받아들이기에 거창하지는 않지만 소소한 조형언어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 4. 시작품



##### 【작품 1】 짜임 편병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원형 110x40x120,, 사각형 100x40x130mm

돛자리 짜임 구조를 사용하여 편병의 형태를 감싸는 듯 표현하였다. 짜임의 구조를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짜임 부분에만 색유를 시유하였으며 그 외의 부분은 무유 소성을 통해 소지의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두 요소 이질적인 대비를 통해 짜임의 느낌을 더욱 강조하고자 하였다.



**【작품 2】 투각 짜임 볼**

백자토, 슬립 캐스팅, 무유, 산화 소성

Ø160x140mm

둥근 볼륨을 가진 기물의 형태 전면에 각 부위별 짜임의 구조를 연결하여 등나무의 질감을 표현하였다. 끝부분의 테두리 마무리에서 감싸진 형태를 강조하기 위하여 투각 기법을 활용하였다. 기물은 유약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조각의 높낮이 표현이 깊게 보일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여러 짜임을 교차, 반복, 연결하여 다양한 짜임의 구조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 【작품 3】 짜임 촛대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Ø70x130, Ø70x90, Ø80x35mm

촛대라는 구체적인 용도를 염두에 두고 기물 형태를 제작하였으며 손잡이를 통해 이미지의 변화를 주고자 하였다. 명도에 따른 세 종류의 무채색 유약을 사용하여 조각 깊이의 차이에 의한 유약 색상의 깊이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4】 소쿠리 짜임 작은 합**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Ø80x,70, Ø80x,70, 뚜껑 Ø85x,8mm

소쿠리의 이미지를 이용하여 합으로 제작하였다. 표현에 있어서는 뚜껑 부분에만 소쿠리 이미지의 짜임 구조를 조각함으로써 민무늬의 몸체와 대비되어 나타나는 느낌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뚜껑에서 짜임의 윤곽을 더욱 강조하기 위하여 유약 시유에 의한 고임 현상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통해 더욱 또렷하며 깊이감 있는 윤곽선을 얻을 수 있었다.



### 【작품 5】 사각 짜임 패턴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95x95x20mm

무늬 짜기의 기법을 사용하여 선의 굵기, 선 사이의 간격, 선의 수에 따른 등나무 질감의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하였으며 짜임의 조직을 강조하기 위하여 정사각형의 타일에 각각의 문양을 배치하였다. 질감 표현에 있어서도 유약의 고임에 의한 색상 변화와 다양한 색상의 유약을 사용함으로써 시각적 주목성에 의한 장식적 효과를 높여 벽 장식 등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작품 6】 투각 짜임 화병**

백자토, 슬립 캐스팅, 무유, 산화 소성

Ø90x250mm

테두리 마무리 기법을 응용하여 여백 공간의 높낮이와 면적의 극명한 차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투각 기법을 활용하여 여백 공간에서 식물의 줄기 부분과 공간감 있는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백색의 소지와 무유에 의한 표현을 이용하여 꽃과의 조화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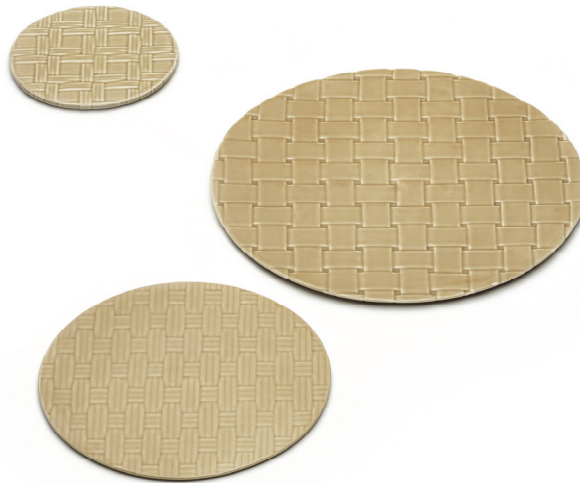


### 【작품 7】 짜임 컵 시리즈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Ø80x150, Ø70x130, Ø75x110, Ø65x95, Ø70x80mm

다양한 높이의 컵 형태를 하나의 시리즈로 구성하여 각각의 짜임 구조와 대비를 통하여 다양한 느낌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각기 다른 짜임의 구조를 전면 배치하거나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에 배치함으로써 짜임에 대한 시각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였다.



**【작품 8】 원형 짜임 플레이트**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Ø250x7, Ø190x5, Ø120x7mm

수직과 수평선의 교차로 인한 패턴과 교차점 선 사이의 사각형 여백이 주는 공간감이 매우 인상적이다. 이러한 조형적 특성을 편평한 원형의 판 형태에 적용하여 접시로 제작하였다. 짜임 구조의 패턴을 강조하기 위하여 얇은 조각을 사용하여 간결한 표현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세 개의 다른 사이즈의 기물에 사용한 조각은 선의 굵기, 깊이를 모두 다르게 하여 서로 다른 질감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작품 9】 테두리 짜임 접시**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Ø240x20mm

접시 중앙부의 바닥 짜기 문양을 상징적 의미로 강조하기 위하여 테두리 마무리 사이의 부분에 조각을 생략하였으며 테두리 마무리 부분에 화려한 짜임 형태를 배치함으로써 두 문양의 대비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접시 옆면의 짜임 구조 역시 앞면의 구조를 전제로 짜임의 구조가 이어지는 형태로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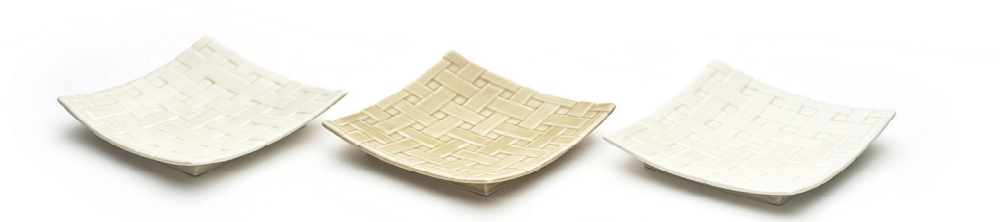


### 【작품 10】 평위임 사각 접시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190x90x20mm

둥근 원형의 단면을 몇 조각으로 나누었을 때 생기는 완만한 곡선의 접시에 평 위기 기법의 짜임 구조를 표현하였다. 안정감 있는 접시로서 쓰임의 역할을 위하여 얇은 굽을 바닥에 붙여 성형하였다. 짜임 형태 역시 다양한 이미지의 짜임 형태를 적용함으로써 장식적 효과는 물론 【작품 5】의 타일과 같이 하나의 오브제로서의 활용도 기대할 수 있다.



**【작품 11】 사방 짜임 사각 접시**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145x145x30mm

정사각형의 형태에 사방 짜기의 짜임 문양을 이용하여 사각접시로 제작하였다. 이 작품의 특징은 각각의 접시를 타일과 같이 나열할 경우 짜임의 구조가 모두 연결된다는 점이며 색상 조합에 따라 다양한 이미지를 연출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투각 기법을 함께 활용할 경우 물 빠짐 같은 기능적 역할에 의한 아 이템 제작도 기대할 수 있다.



**【작품 12】 소쿠리 짜임 이중 접시**

백자토, 슬립 캐스팅, 색유, 산화 소성

Ø270x60mm

짜임의 배치에 있어 과감하게 접시의 중앙선 분할하듯 한쪽에만 배치함으로써 짜임과 여백 대비를 보여주고자 하였다. 짜임의 구조를 표현한 부분과 여백의 공간은 유약을 통해 서로 다른 질감임을 강조하고 있으며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작품 13】 타원 짜임 볼**

백자토, 슬립 캐스팅, 무유, 산화 소성

170x130x180mm

테두리 마무리의 곡선적 이미지를 강조하고자 하였으며 중간의 짜임 형태는 일종의 질감으로 여겨질 수 있게 무유에 의한 자연스러운 색상을 표현하고자 하였다. 용도는 화분으로써 화려한 색상의 꽃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흙의 재질감과 색상을 의식하여 제작하였다.



**【작품 14】 사방 짜임 화분**

백자토, 슬립 캐스팅, 투명유, 산화 소성

Ø90x100mm

별도의 테두리 마무리의 마감을 표현하지 않고, 짜임의 구조를 그대로 마무리하여 적용된 짜임의 구조가 전체적인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하였다. 기물의 겉면은 조각의 입체적 표현의 강조를 위하여 무유 처리를 하였으나 안쪽은 수분의 보존 기능 등을 이유로 유약 처리를 하였다.



**【작품 15】 큰 소쿠리 짜임**

백자토, 슬립 캐스팅, 무유, 산화 소성

Ø330x30mm

짜임 구조의 세밀한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 소쿠리의 이미지를 차용하여 소쿠리 형태의 접시를 제작하였다. 소쿠리 앞뒤의 양면에 일정한 조각의 깊이를 이용하여 실제 소쿠리의 짜임 구조를 조각하였으며 등나무 질감의 소쿠리를 재현하기 위해 갈색의 소지에 무유로 처리하였다.

### Ⅲ. 결 론

짜임은 우리 일상의 사물에 있어 구조와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며 이에 적합한 다양한 재료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흥미로운 점은 재료의 종류, 엮는 방식, 마감에 따라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보여주는데 이러한 형태와 구조가 하나의 조형적 미감을 준다는 점이다.

등공예에서 보이는 짜임의 구조 역시 필수적인 기능과 이에 따른 필연적인 구조로 인해 매우 아름답고 독특한 문양과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등공예의 짜임에 주목하여 짜임의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도식화 작업을 통해 도자기의 장식요소로서의 가능성을 타진해 보았다.

먼저 등공예에 있어 짜임의 형태는 제품의 사용 용도에 따른 내구성과 기능성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과 여기에 부과되는 인위적인 장식적 표현 또한 등나무의 물성을 반영한다는 점이다. 즉 등공예에서 느끼는 안락함과 편안함 등의 느낌은 필연적인 짜임의 구조에 의한 것이며 이것은 시각적 주목성이 가지는 미적가치를 동반하기에 매우 뛰어난 조형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짜임의 구조에 있어서도 직선, 곡선, 대각선 등의 간단한 기하학적 요소의 조합에 의한 간결한 패턴을 만들 수 있으며 생성된 패턴을 복합적 구성에 의해 재배열 한다면 고도의 장식적 표현도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등공예의 특성상 본 연구에서도 등공예의 각종 기법에서 보이는 짜임의 구조를 활용하여 도식화 및 패턴으로의 제작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도자 장식으로의 표현 과정과 질감 표현을 제시함에 있어 석고 원형을 이용한 조각 기법이 제일 유용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 필요한 조각 공정 및 표현 방법, 특정 도구의 사용법을 제시할 수 있었다.

등공예의 짜임 형태를 도자 장식에 적용함에 있어 질감의 표현 방법은 조형적 미감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도자 물성에 적합한 질감 표현을 유약의 시유 유무와 투각 기법에 의한 입체적 재질감을 모색하였다. 결과적으로 유약의 유무에 의한 장단점이 적용 여부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과 투각에 의한 공간 부여가 짜임의 구조와 대비 또는 연계하여 시각적으로 재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종적으로는 짜임의 구조를 도자 테이블웨어에 실제 적용함으로써 짜임의 역할이 장식성은 물론 의미를 함축한 이미지를 제시할 수 있었기에 오브제 제작으로의 활용은 물론 다양한 조형표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상의 연구과정에서 아쉬운 점은 짜임 구조의 적용에 있어 보다 다양한 기물에 적용하지 못한 점이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아이템으로의 적용을 통해 보완해 나가고자 한다. 더 나아가 등공예 이외의 다양한 재료로 제작되는 짜임의 구성과 구조에 대한 장식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 참 고 문 헌

### <단행본>

- 편집부 편, 『등공예』, 태을 출판사, 2019
- 김수현, 『라탄으로 만드는 감성 소품』, 영진닷컴, 2020
- 이숙진, 『고등 등공예』, 민서 출판사, 1985
- 염미란, 『도자조형 디자인의 이론과 실기』, 관동대학출판부, 2001

# **ABSTRACT**

## **A Study on Ceramic Decoration with a Motif of Weave Structure**

**- Centered on Rattan Techniques -**

Park Heonyoung  
Department of Crafts  
Graduates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Weave” refers to an interlacing pattern in the structure or composition of an object. Examples of weaves are seen in clothing fabrics, woven grass, or wood products. The recurring pattern of weaving helps maintain structural durability and functionality. There exists a wide array of weaves, including familiar ones in traditional woven items such as baskets. Rattans stand out among the many types of weaves when it comes to decorative and artistic features. They are used extensively to make a variety of furniture and practical items while presenting uniquely inherent decorative and esthetic qualities, which is attributable to their texture and durability and distinctive weaving patterns that are customized to ensure proper functional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use of a variety of structures and

patterns of rattan weaving to emphasize ceramic decoration. To accomplish this, rattan techniques were analyzed in depth to present decorative patterning processes and subsequently apply them to genuine ceramic tableware.

Rattan weaving has three characteristics: the bottom that forms the entire shape, the body, and the end. Given the different weaving techniques, specific schematization and patterning processes were presented in detail based on each technique.

In terms of the method used to make rattan products, this study sought to seamlessly incorporate rattan texture into ceramic properties. Throughout the process, a specific method referred to as “plaster prototype carving” was proposed to embody weave patterns in the form of carving. Furthermore, to add the finishing touches to texture, a series of experiments were performed, including one that focused on the use of glaze.

As a result, this study derived weaving patterns that can be used for ceramic decoration and presented a combination of materials that accentuated the texture and methods of manufacturing rattan products. In summary, regarding the practical applications of rattan weaving to ceramic decoration, this study successfully applied the decorative carving of weaving patterns and the elaborate use of glaze to ceramic tableware items and confirmed the possibility of using rattan weaving as an effective means of ceramic decoration.